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HE TRANSITION  
가제 : 인생 개조 프로그램  
저자 : Luke Kennard  
출판사: Fourth Estate  
발행일: 2017년 3월  
분량 : -  
장르 : 풍자 소설



#### **굳센 열의도, 결단력도 없이 냉혹한 현실에 갇혀버린 젊은 세대의 미래를 그린 특별한 이야기**

평균 30대 중반을 넘어서야 부모님 밑에서 독립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나마 독립한 젊은이들은 겉모습이야 어엿한 성인의 모습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간다. 비즈니스, 정치, 혹은 지역사회에서 유능한 리더가 되어야 할 청년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월세 단칸방에 살면서 빚에 쪼들리고 인턴 자리를 전전하며 보이지 않는 덫에 갇혀 살거나, 우울한 현실보다는 게임 속 가상세계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의 경제력이 어떤 상태인지 쉽게 망각하며 수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유독 지금의 젊은 세대는 패기와 열정이 부족하고 무언가 스스로 도전해보겠다는 동기 자체를 느끼지 못할까? 이들이 밟고 올라서야 할 사다리의 맨 첫 단, 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첫 가로대가 발을 걸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높이 있어서일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줄 적절한 조언과 약간의 경제적인 지원이 주어진다면 이 무기력한 세대를 우울 밖으로 꺼내줄 수 있을까? 이 소설은 칼 템펠리라는 서른네 살 청년을 깊은 우울에 빠진 듯한 지금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이러한 가설을 시험해본다. 혼자서는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발버둥치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버린 칼에게 인생을 개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그는 모두가 바라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칼이 대학에서 시를 공부하며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느라 쏟아 부은 학비는 무려 1억 3천만 원에 달했다. 비현실적인, 가능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액수는 오히려 자꾸 망각하는 빛이 되었다. 졸업 후 칼이 택한 일은 사용해본 적도 없는 제품의 리뷰를 그럴듯하게 작성하거나, 중고등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과제를 대신 써 주는 일이었다. 글자당 170원, 결코 전도유망한 직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전공을 살릴 수 있기에 그냥 택한 일이었다.

### 무기력함을 벗고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생 개조의 기회

칼의 아내 주느비에브는 초등학교 교사다.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족하리라 여기지만, 둘은 매달 집세와 세금, 갚아야 할 빚까지 여유는커녕 늘 쪼들리며 살았다. 칼은 줄지 않는 카드 빚에는 두 사람의 생활 방식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장을 볼 때마다 쓸데없는 주전부리와 수준에 안 맞는 고급 커피로 카트를 가득 채우고, 수시로 외식을 하고, 기념할 일이 있으면 뒷일은 생각지 않고 해외 여행도 다녔다. 이런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칼은 최대 한도액이 각기 다른 17장의 신용카드를 돌려가며 사용했다. 아내는 두 사람이 평소에 돈 벌려고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니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을 뿐, 칼의 그런 속사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칼은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보수가 더 나은 일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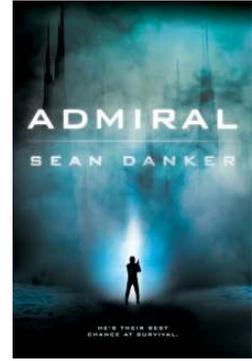
3년 후, 칼은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독촉장, 경고장이 날아오기 시작하고 급전이 필요했던 칼은 자신에게 일감을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달라는 절박한 메일을 보냈다. 답장을 보내온 건 한 명뿐이었고, 칼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지만 단기간에 카드 빚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보수가 걸린 일이었기에 칼은 바로 수락했고, 그 일이 불법 사기였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다. 결국 탈세, 사기 혐의로 체포된 칼은 유죄 선고를 받고 아내와 함께 ‘개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성공한 어느 노부부의 집에 들어가, 방 한 칸을 빌려 함께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처음부터 새로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해진 ‘졸업’ 날까지 칼은 성숙한 한 시민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다. ‘멘토’가 된 노부부와 함께 살면서, 칼과 주느비에브는 무모한 생활과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이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에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 왜 그런 생활은 높이 될 수 밖에 없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지금과 머지 않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자본주의와 주택 위기, 빚이라는 덫에 묶여버린 세대의 실상을 고발하고 파산한 젊은 부부가 인생을 다시 설계해나갈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흥미진진하게 그린 소설이다. 물 흐르듯 유려한 문장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첫 장부터 마음을 사로잡는다.

#### <저자 소개>

루크 케나드(Luke Kennard)는 시인이자 소설가로, 엑세터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를 취득하고 버밍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005년 ‘작가협회’로부터 ‘에릭 그레고리 상(Eric Gregory Award)’을 수상했으며, 산문시 모음집 『The Solex Brothers』, 『The Harbour Beyond the Movie』 등을 발표했다. 2014년에는 ‘시집협회’가 10년마다 발표하는 ‘차세대 시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제목 : ADMIRAL  
가제 : 제독  
저자 : Sean Danker  
출판사: Roc  
발행일: 2016년 5월 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SF 소설



“마션(The Martian)의 액션감과 ‘스테인레스 쥐’(The Stainless Steel Rat)의 교묘한 심리전이 교차한다. ‘제독’은 스파이물의 서스펜스로 잘 포장된, SF 요소가 풍부한 아주 만족스러운 군사모험물이다.” —진 존슨(‘The V’Dan’의 저자)

“눈을 땔 수 없는 우주 미스터리, 서스펜스와 액션의 매혹적인 조화” —윌리엄 C. 디에츠(‘The Legion of the Damned’의 저자)

낮선 행성, 낮선 병사들 속에서 깨어난 해군 제독, 단편적인 기억과 목을 죄어오는 위기 상황들 두런대는 낮선 목소리들, 그러다 갑자기 흥분에 내리 꽂힌 주먹 한 방에 정신이 번쩍 깨어난 남자가 있다. “이 사람이 제독이라고? 너무 젊은데.” 남자는 주위를 오가는 말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을 둘러싼 세 명의 군인임을 알아챈다. 남자가 깨어난 곳은 배 안에 설치된 침대 칸이었고, 어쩐 일인지 실내는 온통 컴컴하고 빛이라곤 깨어난 그를 재빨리 비추는 세 사람의 손전등 불빛이 전부였다. 여자 둘에 남자 하나, 군용 내의를 걸치고 경직된 태도로 남자를 각뚱하게 대하는 세 사람은 사관학교 졸업 후 전투에 처음 배정 받은 신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들을 살펴보면 남자는 두 여자 가운데 키가 큰 사람이, 자신과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싫은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그런데 제독이라니? 남자는 세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의아해하지만, 방금 깨어난 침대 칸에도 같은 직함이 적혀 있었다. 에바가디언 제국의 해군인 남자는 기억에도 없는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워하면서 조금씩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한다.

에바가디언 제국군은 저마다 담당하는 전문 분야가 있다. 남자를 떨떠름한 눈으로 바라보는 키 큰 여자는 데일리아니 중위로 과학과 의학을 전공한 생물 분야 전문가이고, 엔사인 닐스 병사는 기술과 엔지니어링 분야를 담당하는 해킹 전문가였다. 그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남자에게 갑자기 배 전체에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누군가 침대를 해코지해놓은 꼴을 목격하고, 남자가 정신을 차리도록 깨운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나머지 한 명, 아담한 키에 예쁜장한 얼굴을 한 프라이빗 셀마가드 병사는 집안 대대로 제국의 황후의 경호원을 배출해 온 귀족 가문의 첫째 딸이었다. 에바가디언 제국과 숙적인 갠리언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양측의 합의로 휴전에 들어간 사이, 남자는 자신이 소속된 함대도 아닌 낯선 화물수송선에 세 명의 처음 보는 병사들과 남겨진 것이다.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이유도 모른 채 시작된 수상한 존재들과의 혈투

제독으로 불리게 된 남자가 맨 마지막에 깨어나긴 했지만, 나머지 병사들 역시 영문을 모른 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건 마찬가지였다. 일단 손전등에 의지하며 선박 곳곳을 둘러보던 네 사람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된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는 난파선이며, 넷을 제외하고 배 위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모조리 목숨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 그리고 배는 어딘지 모르는 낯선 행성의 중심을 향해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 시시각각 이상한 중력에 끌려 들어가는 배에서 벗어날 방법을 어서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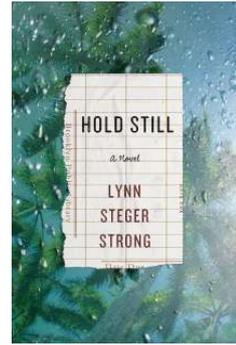
푸르스름한 녹색 안개가 대기를 온통 뒤덮은 이상한 행성에서, 네 명의 해군은 제독의 지휘로 탈출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군인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네 사람은 자신들이 죽기 일보직전의 곤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들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군의 공격과 끊어진 전력, 그리고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극한의 상황을 견디어보지만 연이어 식량과 마실 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제독과 병사들은 각자가 가진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임시방편을 마련하여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간다. 그리고 제독이 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문 하나가 있었다. 전투에 참전한 모든 제국 군인들은 고향으로 다시 실어다 줄 우주선 ‘줄리앙’호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장소에 지정된 시각까지 가야 했는데, 자신이 왜 그 우주선을 놓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기억이 드문드문 사라지고 심지어 자신이 제독으로 승진한 사실도 기억에 없는 상황에서, 남자는 그 의문을 풀어야 한다.

이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어쩌다 난파됐을까? 가장 마지막에 깨어난 남자는 정말로 제독인가? 만약 그가 제독이 아니라면 진짜 제독은 따로 있을까? 공기도, 물도 음식도 바닥을 보이고 전력이 끊겨 끔찍한 추위가 몰려온다. 과연 이 죽음의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살아날 수 있을까? 이야기가 끝나기 전까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남자의 비밀과 끝없이 이어지는 위기 상황이 긴장감을 더한다.

### <저자 소개>

션 댄커(Sean Danker)는 열다섯 살부터 글을 쓰면서 생화학자이자 SF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에 푹 빠져 살았다. 현재 노스다코타의 군 기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제목 : HOLD STILL  
가제 : 그대로 가만히  
저자 : Lynn Steger Strong  
출판사: Liveright  
발행일: 2016년 3월 2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문학 소설



“린 스티거 스트롱은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수렁에 빠지고 다시 자기 자신을 되찾는지에 대해 깊은 연민과 호기심을 보여주고 있다.” —리처드 포드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진 어린 딸의 새 출발을 계획한 엄마, 그러나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비극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각각 철학 교수, 영문학 교수로 일하는 스티븐과 마야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엘리와 벤, 두 아이가 성인이 되고 독립할 나이에 가까워지면서 가족의 운명은 더 이상 감추기 힘든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시작한다. 마야가 이제 스무 살이 된 딸 엘리를 집이 있는 뉴욕과 멀리 떨어진 플로리다의 친구 집으로 보내기로 결심한 것도, 도무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진 엘리에게 한줄기 지푸라기라도 던져주고 싶은 심정에서였다. 마약, 이상한 남자들과의 문란한 생활로 귀중한 시간과 젊음을 흘려 보내며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엘리에게 낯선 곳에서 지내는 시간은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마야는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더 큰 고통의 뿌리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마야는 교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재능을 타고 났다는 말이 자자할 만큼 유능하다고 인정 받고 있지만 워낙 깐깐하고 차가운 성격 탓에 엘리와 그리 친밀한 모녀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아들 벤은 워낙 애교가 많고 친화력이 높은 아이라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냈지만, 엘리에게는 늘 엄격한 엄마일 뿐이었다.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 혼자 숨어버리는 마야의 습관도 엘리나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불씨가 되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에서나 남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목을 죄어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면 마야는 브루클린과 맨해튼 거리 곳곳을 누비며 몇 시간이고 조깅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틀어 박혀서 소설책을 집어 삼킬 듯이 읽어대는 것으로 혼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날려버리려고만 했다. 그 사이 엘리는 방향의 나날을 이어갔고, 남편 스티븐과의 사이에도 더 이상 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냉기가 짙어졌다. 때 마침 플로리다에 사는 마야의 친구가 여름 동안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야의 머릿속에는 엘리가 바로 떠올랐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딸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조금은 섞여 있었지만,

엘리를 먼 플로리다까지 보내기로 한 건 어디까지나 엘리의 새 출발을 위해서였다.

### **똑똑하고 박식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 진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서툰 부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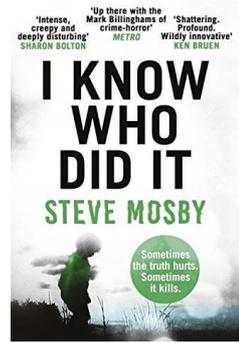
처음에는 마야의 계획이 성공적인 결말로 나아가는 것 같았다. 엘리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깊이 파버린 인생의 비극적인 시간들로부터 아주 천천히 빠져 나오기 시작하고, 캄캄하게만 느껴지던 자신의 미래를 다시 꿈꾸며 한줄기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 하지만 뉴욕에 남은 식구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축구선수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던 벤이, 마야와 스티븐에게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휴학을 하겠다며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어떻게든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아내에 대한 불만도, 엘리의 문제도 꺾고 참으며 갖은 애를 써 온 스티븐의 인내심은 벤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폭발해버리고, 마야는 겨우 한숨 돌리려다 더 높은 절벽과 맞닥뜨린 기분을 느낀다. 급기야 엘리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엄마아빠와 달리 한없이 다정하고 친절할 엄마의 친구네 집에서 처음으로 가슴 따뜻한 행복을 맛본 것도 잠시, 엘리의 마음속에 서서히 두려움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존재이기만 했던 부모님을 끝없이 실망시켰던 시간들처럼, 이 사랑스러운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결국 유난히 공기가 습하던 어느 날, 엘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엘리가 플로리다에 머물던 2011년에 전하는 이야기와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른 2013년에 마야가 전하는 이야기가 번갈아 나오면서 과거의 그 비극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가족들이 짊어지고 버텨 나가는 현재가 조금씩 전해진다. 딸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엄마가 내린 선택, 그 선택에서 시작된 비극, 더 무참히 깨져버린 모녀의 관계를 마야와 엘리, 둘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이야기 속에는 타협할 수 없는 둘의 차이점과 동시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둘의 공통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흔들리는 가족을 바로 세우려는 서툰 부모와 두 자녀의 고투에는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가족이라는 관계의 숙명과 서로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 **<저자 소개>**

린 스테거 스트롱(Lynn Steger Strong)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소설 창작을 공부한 후 신입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다. 현재 플로리다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I KNOW WHO DID IT  
가제 : 누구 짓인지 알아요  
저자 : Steve Mosby  
출판사: Orion  
발행일: 2015년 9월 24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아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자, 여자친구가 죽는 모습을 지켜본 남자, 그리고 삶이 파괴된 남자, 기묘한 상황에 놓인 세 명의 시선을 따라가는 스릴러**

데이빗 그로브스 형사에게는 밤마다 엄마아빠와 같이 자려고 때를 쓰는 아들이 있었다. 아내 캐롤린과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제이미는 세 살이 다 되도록 혼자 눕는 것을 못 견뎌 했다. 밤에 잘 자라고 인사하고 혼자 눕혀 놓으면 곧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오기 일쑤였다. 마음이 약해진 부부가 결국 제이미를 자신들의 침대에 눕히면, 제이미는 그로브스 형사의 옆에 꼭 붙어서 썩썩 잠이 들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제이미를 어두운 숲 한가운데에서 싸늘한 시체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보라색 상어가 그려진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으며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음산한 숲에서 경찰들과 함께 두개골이 깨진 채 나뭇잎으로 뒤덮인 제이미의 주검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그로브스 형사는 오로지 범인을 잡기 위해 살아간다. 차갑게 식어버린 제이미를 발견한 그 날의 기억은 잊혀지기는커녕 흐려질 기색조차 없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만 갔고, 경찰도 그로브스 형사도 누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뒤에도 매년 제이미의 생일마다 그로브스 형사의 집에 익명의 축하카드가 도착하는 것이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단순한 생일 축하 문구가 전부였던 이 묘한 카드가 어느 날, 그를 얼어 붙게 만들었다. “난 누구 짓인지 알아.” 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있었다.

한편, 삼십 대 초반의 젊은 형사 마크 벨슨은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을 접한다. 형편없는 몰골로 거리를 헤매다 경찰관에게 붙들려 온 한 여자가 자신을 찰리 매더슨이라고 밝힌 것이다. 찰리 매더슨은 2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바로 그 찰리라고 주장하는 여자를 미치광이라고 치부하기에 그녀는 죽은 찰리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몰래 조사했거나 외웠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꿰고 있는 이 이상한 여자는 찰리의 목숨을 앗아간 문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하는 마크 벨슨 형사는 난감해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 벌써 몇 년째 머릿속을 맴도는 자신의 내밀한 과거와 연결되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다.

### 죽은 아이의 생일에 도착한 카드,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여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넬슨 형사는 여자친구 라이스와 단둘이 떠난 바다 여행에서, 손 쓸 틈도 없이 바로 눈 앞에서 그녀가 익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그 사고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그 비극이 넬슨 형사의 인생을 완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슬픔을 견디지 못하던 그는 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로 거처를 옮겼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찰이라는 번듯한 직업까지 구했다. 게다가 운 좋게도 살인 사건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던 존 머서 형사의 팀에 들어가 함께 일하는 기회까지 잡는다. 혼자 있을 때면, 라이스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진 아이러니한 현실을 떠올리며 만약 시간을 되돌려 라이스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자신이 그녀를 건져 올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곤 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하던 이 일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찰리 매더슨과 만나면서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데이빗 그로브스 형사와 넬슨 형사,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고 유능하게 살인 사건을 해결해나갔던 형사에서 방안에 틀어 박혀 온종일 수심에 잠겨 절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존 머서 형사까지, 이야기는 각자 기묘한 상황에 놓인 세 형사의 시선을 따라가며 긴장감 넘치게 전개된다. 아들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카드를 받은 후, 그로브스 형사의 집에는 불에 타 죽은 남자의 시신이 나타났고 시신의 얼굴에는 분명 누군가의 손에 살해당한 흔적인 깊이 패인 상처가 있었다. 세 형사의 앞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악마 같은 존재, 지상이 상상할 수도 없던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그 악랄한 실체는 세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찌꺼기처럼 남아 있던 비밀과 감정을 들춰낸다. 그러나 지옥 같은 순간을 견뎌야 악마를 붙잡을 수 있다.

### <저자 소개>

스티브 모스비(Steve Mosby)는 『THE THIRD PERSON』, 『THE CUTTING CREW』, 『THE 50/50 KILLER』, 『CRY FOR HELP』, 『STILL BLEEDING』, 『BLACK FLOWERS』, 『DARK ROOM』, 『THE NIGHTMARE PLACE』 등의 소설을 쓴 작가로, 그의 소설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됐다. CWA 대거(CWA Dagger) 상, ‘텍스톤스 올해의 범죄소설 상(Theakstons Crime Novel of the Year)’ 등에 후보로 선정됐다.

## NON-FICTION

제목 : OUTSIDE INSIGHT  
가제 : 바깥 세상의 통찰력  
저자 : Jorn Lyseggen  
출판사: Portfolio  
발행일: -  
분량 : -  
장르 : 경영



### 10여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를 키워낸 저자가 전하는 통찰력

#### 소비자와 현재 기업이 처한 위치를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생존 전략

예일 대학교의 리처드 포스터 교수는 S&P 500 기업의 평균 수명이 1920년대만 해도 67년이었으나 오늘날은 15년으로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2012년까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업체들로 S&P 500 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구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렇게 정신차리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고투를 벌이다가 변화의 속도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과 마주한다. 제품 리뷰며 고객 만족도, 투자 전망, 자사 직원들의 근무실태, 경쟁사 분석 정보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출처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업의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리고 건강하게 생존하려면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

노르웨이에서 10여 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를 키워낸 저자는 “외부에서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회사의 발전 전략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지 못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기업의 생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데이터 더미 속에서 영리하게 추려낸 알짜배기 정보, 이 정보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 코 앞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노르웨이로 입양된 저자는 2001년, 달랑 1만 5천 달러의 자본금으로 ‘멜트월터’라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의 사무실에서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이 된 멜트월터는 바깥 세상에서 얻는 통찰력의 가치를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수백 만 건의 문서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의견들, 기업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고객이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멜트월터가 하는 일이다. 저자는 바로 이런 경영 철학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고, 이 책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이미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생산되고 유입되는 정보들을 추려내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아마존은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회원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추천 상품을 정하고 고객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구글 역시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 제품을 개발하고 더욱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찾는다. 저자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스프레드시트'라고 칭한 페이스북은, 15억 명 이용자들을 무급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력처럼 활동하며 매달 300억 건에 육박하는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 저자는 나이키, 캐논, 볼보, 시스코, 로레알, 네스프레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글로벌 기업과 조직들이 이 같은 외부 통찰 방식을 도입하여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분석한 사례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며 그 효용성을 생생하게 전한다. 소비자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수많은 경쟁사들 사이에서 현재 자신의 기업이 처한 위치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 <목차>

##### 1부. 외부 통찰력: 오늘날 세계를 만드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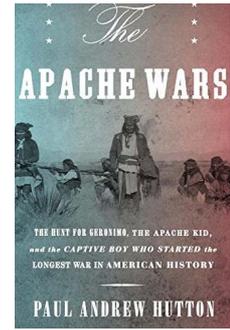
- 1장. 디지털 '빵 부스러기(활동 흔적)' 어떻게 찾아야 할까
- 2장. 과거는 다른 나라와 같다
- 3장. 사례 비교
- 4장. 의사결정 방식을 점검하라
- 5장. 벤치마킹의 가치
- 6장. 회사 운영 방식의 변화 전망
- 7장. 이사회 의 변화 전망
- 8장. 새로운 이사회가 가진 부당한 이점

##### 2부. 외부 통찰력: 실전

#### <저자 소개>

욘 리세겐(Jorn Lyseggen)은 한국에서 태어나 노르웨이로 입양되어 그곳에서 자랐다. 초기 창업 자금 1만 5천 달러로 '멜트월터'를 시작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2008년에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멜트월터 기술 창업학교'를 설립하고 글로벌 기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제목 : THE APACHE WARS  
가제 : 아파치 전쟁  
저자 : Paul Andrew Hutton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6년 5월 3일  
분량 : 528 페이지  
장르 : 역사



### 미국이 남서부 국경을 확립하기 위해 벌인 아파치족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역사적 사건들

1861년부터 1890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기억되는 아파치족과 백인 침략자들간의 지긋지긋한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미국이 아파치족에게 애리조나 중동부의 보호구역으로 이주하라는 강제 명령을 내린 후, 치리카후하족을 포함한 여러 아파치 부족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끝까지 저항했다. 미국 정부는 불안한 국경 상황을 어떻게든 매듭짓기 위해 남북 전쟁 영웅인 조지 크루크 장군을 애리조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해결에 나섰지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억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한 아파치족의 지도자 제로니모와 일명 '아파치 키드'로 불리며 미국이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고 잡아들이려 했던 화이트마운틴 아파치족의 일화는 지금까지도 아파치 전쟁을 상징하는 이야기들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빼놓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다. 바로 이 기나긴 전쟁의 시발점이 된, 인디언 혼혈아 '믹키 프리'다.

싸늘한 공기가 내려 앉은 1월 말의 어느 아침, 펠릭스라는 이름을 가진 열두 살 남자아이는 들판에 나갔다가 저 멀리서 몰려오는 모래 구름을 목격한다. 겁을 집어먹은 아이는 엄마와 여동생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달아났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멕시코 사람들과 아파치족이 소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던 곳이고, 멕시코 인들이 결국 아파치족을 이겨내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을 펠릭스는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모래 구름 사이에서 말을 타고 달려온 십여 명의 아파치족이 모습을 드러냈다. 펠릭스는 가까운 복숭아 나무를 골라 미친듯이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년을 발견하고 말했다. 펠릭스는 '난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지만, 커다란 흉터 때문에 험상궂게만 보이던 아파치족 추장은 싱긋 웃으며 어서 내려오라고 손짓할 뿐이었다. 그도 펠릭스처럼 눈이 하나 밖에 없었다. 아이는 얼른 나무를 내려갔고, 그로부터 수년 후에 백인들이 '믹키 프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전까지 '코요테'로 불리면서 아파치족의 손에서 자랐다. 그 날 아침 펠릭스와 아파치족의 이 우연한 만남은, 25년 넘게 텍사스 페코스 강을 따라 뉴멕시코, 애리조나, 멕시코에 이르는 거대한 땅에서 무수한 피를 흘리게 만든 전쟁의 시초가 되었다.

이 책은 아파치족과 미군 양쪽이 모두 절실히 자신들의 손에 잡아 두려고 했던 인물, 믹키 프

리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파치 전쟁의 역사를 추적한다. 제로니모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인디언 사냥꾼으로도 유명한 맥키 프리는 아파치족에게 납치되어 그들 손에서 키워졌지만, 미국과 전쟁이 터지자 아파치족 경찰대의 일원이 되어 이들을 색출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저자는 아파치족과 미군 양쪽을 오가며 살았던 이 특별한 혼혈아의 생애와 더불어, 미국이 남서부 국경을 확립하기 위해 사막과 산을 누비며 벌인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전쟁에 등장한 동시대의 전사들과 역사적 인물들을 재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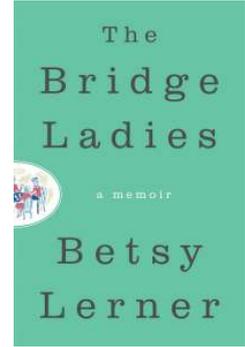
<목차>

- 1장. 아파체리아(아파치족이 사는 땅)
  - 2장. ‘빨간 소매’
  - 3장. 사라진 소년
  - 4장. 아파치 통행로
  - 5장. 킷 카슨의 방식
  - 6장. 화이트 마운틴 사람들
  - 7장. 망가스 콜로라다스의 머리
  - 8장. 특별한 관습
  - 9장. 캠프 그랜트
  - 10장. 대살육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폴 앤드류 휴튼(Paul Andrew Hutton)은 뉴멕시코 대학교의 역사 교수로 미국 문화사를 알리면서 저술가, 다큐멘터리 작가 등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서부 역사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로, TV 프로그램과 다양한 간행물, 저서를 통해 서부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제목 : THE BRIDGE LADIES  
가제 : 엄마의 브리지 모임  
저자 : Betsy Lerner  
출판사: Harper Wave  
발행일: 2016년 5월 3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저자는 엄마와 딸 모두의 성장 스토리를 게임을 통해 멋지게 엮어, 유머러스하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패티 스미스**

고루하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인 줄만 알았던 엄마 세대의 어른들에게서 배운 인생의 진리와 가치 불과 10 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엄마를 평생 되도록 멀리하고 피해 다니면서 살아온 저자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수술을 계기로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며 어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이전 세대에 대한 뜻밖의 통찰을 얻게 된다. 무려 50년 동안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둘러 앉아 브리지 게임을 해 온 엄마의 친구들을 만나게 그녀는, 페이스북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진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직접 체험한다. 그리고 이 여성들에게서 느낀 삶의 지혜와 감동, 저자 자신의 반성과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들이 모두 이 책에 담게 된다.

매주 월요일이면 저자의 어머니인 로즈와 동네 친구 로다, 비, 잭키, 베틀까지 다섯 명의 여성이 카드 테이블에 둘러 앉는다. 50년의 손때가 가득한 낡은 카드 한 벌이 종이 상자에서 꺼내져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이들 중 누군가가 직접 만든 쿠키나 브라우니도 항상 근처 어딘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 모두 카드에만 집중한다. 침묵 속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오직 카드를 넘기고 테이블에 내려놓고 옆으로 길게 펴는 소리만 정적을 깨는 그 시간들, 누가 근처에서 잡담이라도 하면 잔뜩 찌푸린 얼굴들을 마주해야 한다. 저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다섯 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자랐다. 머리카락 한 올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스프레이로 단단히 고정시킨 헤어스타일, 반짝이는 빛깔의 부드러운 나일론 옷을 걸친 엄마와 엄마 친구들은 어린 저자의 눈에 더없이 멋진 존재들이었다. 그 진지한 모습에 저자는 브리지 게임이 시작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 안에서도 늘 발뼘꿈치를 들고 조심스레 걸어 다녔다. 하지만 십대가 된 저자의 눈에 이들은 더 이상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 세상 밖에선 여성의 지위가 한층 높아지는 혁명이 한창인데, 꿈쩍도 않고 둘러 앉아 카드놀이나 하는 지겨운 사람들로 보였을 뿐이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늘 꿈꾸던 출판계에 몸을 담게 된 저자에게 브리지 게임을 하는 다섯 명은 여전히 고루한 구세대이자 머나먼 과거의 유물로만 느껴졌다. 어머니가 병을 앓게 되고 마침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고향인 뉴헤이븐으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수십 년 만에 고향 집을 찾은 저자의 시야에 다시 이들이 들어온다. 그제야 저자는 평생 깨닫지 못했던, 브리지 클럽의 역할과 구성원들의 관계 속

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

스마트폰이 생활의 중심이 된 21세기 젊은이들과 브리지 게임을 하는 다섯 명의 노부인들은 닳은 구석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이들은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과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며, 심지어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한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힘든 일들에 대해선 모임에서도 별로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섹스나 대인관계, 아이들 이야기는 특히나 먼 대화 주제다. 그저 가족을 부양하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유난히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우울해지면 끝내주는 요리를 만들어 마음껏 즐기는 것으로 풀어버린다. 분홍빛 립스틱 바르는 걸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지만 마약이나 로큰롤, 섹스에 열광하는 시대 분위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낳은 장본인들이다. 저자는 한 때 지구상에서 가장 지루한 집단으로 보았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러한 자신의 판단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착각이었음을 깨닫는다.

1년여의 시간 동안 저자가 브리지 게임을 하는 노부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아픈 엄마를 대신해 직접 게임에 참여하면서 한 명 한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함께 더듬어가면서 느낀 점들, 이 세대가 감당해야 했던 아픔과 비밀, 인터넷 세대는 절대 알리 없는 이전 세대의 소중한 가치를 일기처럼 진심 어린 문장들로 풀어놓은 책이다.

#### <목차>

1. 사적인 언어
2. 맨해튼 브리지 클럽
3. 아테네 출신
4. 베틀 코헨의 이야기
5. 빙고
6. 내가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만난 줄 아니
7. 무엇을 기대하라
8. 러프(으뜸패)
9. 우리 클럽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벤티 러너(Betsy Lerner)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시 창작으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토마스 울프 시인 상(Thomas Wolfe Poetry Prize)’, 미국 시·시인 협회 상, PEN 신인 작가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2000년 처음 발표된 후 현재까지 계속 출간되고 있는 『The Forest for the Trees』와 회고록인 『Food and Loathing』이 있다.

제목 : EUROPE'S ORPHAN  
가제 : 유럽의 고아  
저자 : Martin Sandbu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년 9월 29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경제



### Financial Times에서 선정한 2015년 최고의 경제학 도서 중 하나!

####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분열의 일차적 원인으로 비난 받는 유로화, 그 오명을 바로잡는 해명서

유럽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계획의 핵심으로 탄생한 유로화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채와 침체된 경제, 포퓰리스트들의 격렬한 비난 속에서 뱉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목에 딱 걸려버린 돌멩이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경제 기사를 담당해온 저자는 이 같은 분위기에 반기를 들고 이 책에서 유로화의 존재 가치를 전격 방어한다. 전 세계에 몰아 닥친 경제위기 이후 유럽이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원인은 유로화가 아닌 유로존에 속한 각 정부기관과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주장이다. 은행과 정치인들, 정부 당국이 자초한 정책적 실수와 오류, 불건전한 정부 재무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채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극도로 꺼리는 행태가 마구 뒤엉켜 경제 상황이 거의 재난과 같은 수준으로 치달고 경기가 침체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시된다.

유럽의 화폐를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더 단단하고 거대한 단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의견이 제기된 시기는 신용 거품이 잔뜩 부풀어오른 상황에서도 유럽의 각국 정부가 고삐를 더 조이지는 않겠다고 결정한 때와 일치한다. 그리하여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수많은 생각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권력과 은행 부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경제 분야의 의사 결정을 이데올로기에 치중해서 내리다가 실수는 더욱 늘어만 가고, 유로존의 정치적 긴장감까지 고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저자는 각국의 재정과 정치가 통합되어야만 비로소 화폐 통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대다수의 의견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단언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은 유럽 전체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한 정치적 마비 사태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위기로 유로존에 사는 젊은이들 중 4분의 1 가량이 치솟는 실업률과 도무지 현실성 없는 정책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비난의 화살은 유로화로 향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 화살이 엉뚱한 곳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이 연이어 저지른 실수라는 진짜 원인을 향하도록 바로잡고, 유럽 정치계의 다소 불편한 진실을 낱알이 고발하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짚어낸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견지는 총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유로화가 없어도 유로존 국가들은 2010년에 찾아온 경기불황의 폭풍에 휩쓸렸을 것이다. 미국이나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이 신용도를 무리하게 낮추면서까지 지나친 확장을 지속한 것처럼 유럽 각국도 자국 통화가 유지됐면 똑같은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둘째로, 인도, 중국과 같은 강력한 신흥세력은 물론이고 유럽의 가까운 적수인 러시아가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유로존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유럽의 분열을 막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화폐 통화를 비난하기보다는 반대로 유로본드 발행 등 유럽의 통합을 더욱 확대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자는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현재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분열 상황에서 유로화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대책을 제시한다.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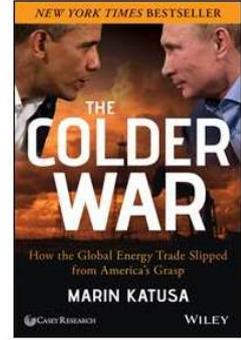
1. 역사상 최악의 실수?
2. 추락 이전의 상황
3. 그리스, 그리고 부채를 향한 이상숭배
4. 아일랜드: 민간 부문의 정치적 선택
5. 더 깊이 패인 유럽의 구덩이
6. 바로잡기 - 긴급구제자금부터 손실부담제도까지
7. 유럽이 과감히 부채를 가감한다면
8. 유럽이 진짜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

(이후 생략)

#### <저자 소개>

마틴 샌부(Martin Sandbu)는 옥스포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콜롬비아 대학교, 워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009년부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경제 분야 기사를 기고하고 있다.

제목 : THE COLDER WAR  
가제 : 제 2차 냉전  
저자 : Marin Katusa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4년 11월 10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정치/경제



“환상적이고 흥미로우면서도 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한 ‘제 2차 냉전’은 첫 장부터 당신을 사로잡아 단숨에 마지막장으로 이끌 것이다.”

### 미국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 러시아로 넘어간 세계 에너지 지배권과 새로운 냉전

현재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아래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정학적인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 그로 인해 일어난 세계 정세의 크나큰 판도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결연하기로 유명하던 KGB 요원에서 현대판 황제의 자리에 오른 푸틴 대통령이 어쩌다 그토록 강력한 힘을 거머쥐게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적인 권세를 위협할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시작된 새로운 냉전 시대, 이 엄청난 권력의 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서서히 퍼져 나갔다. 30세에 캐나다 최대 구리 광산을 개발하면서 경제계에 뛰어들어 에너지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저자는 서구 사회가 에너지 시장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을 이 대대적인 권력 변화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책에서 그 변화의 과정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만 같던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이러다 완전히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중심에는 미국 언론매체가 수시로 조롱하고 놀려대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인 ‘에너지’가 서 있다. 저자는 러시아에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 말겠다는 푸틴의 꿈은 세계 에너지 자원을 손아귀에 쥐겠다는 목표로 이어졌고,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끝없이 치솟는 마당에 미국이 정치판에서 옥신각신 다투며 정신 못차리는 사이에 러시아가 바로 그 꿈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핵심 자원의 소유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이 이 같은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인지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미국의 생활 방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처럼 주류와 벗어나는 대담한 통찰을 이 책에서 거침없이 던지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거대한 판도 변화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내버려둘 경우 미국의 경제에 어떤 변화가 몰아 닥칠 것인지 현실적으로 분석한다.

러시아가 정치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고 적대적인 기업인수, 암살이라는 전략을 동원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선 과정과 더불어 푸틴의 권력 강화와 이로 인한 세계 무역 균형의 대대적인 변화, ‘노상 강도’로 일컬어지던 악덕 자본가 세대를 모조리 정리한 러시아의 노력, 푸틴의 장기적인 계획, 이것이 미국에 끼칠 잠재적인 영향이 이 책에 상세히 담겨 있다. 푸틴 대통령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권력을 더 많이 빼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7 국가의 자리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차지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저자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토대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국 달러화와 국민들의 생활 전반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함께 내다보면서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Average Customer Review:** ★★★★★ (203 customer reviews)

**Amazon Best Sellers Rank:** #59,560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24 in Books > Business & Money > Investing > **Commodities**

#24 in Books > Business & Money > Industries > Energy & Mining > **Oil & Energy**

#31 in Books > Politics & Social Sciences > Politics & Government > International & World Politics > **Russian & Former Soviet Union**

#### <목차>

- 1장. ‘잃어버린 10년’의 종말
- 2장. 유순해진 과두정치
- 3장. ‘위대한 게임’, 그리고 냉전의 종결
- 4장. 슬라브족 전사
- 5장. 우크라이나
- 6장. 정치인 푸틴
- 7장. 석유의 푸틴화
- 8장. 가스의 푸틴화
- 9장. 우라늄의 푸틴화
- 10장. 중동: 석유, 전쟁, 그리고 위대한 게임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마틴 카투사(Marin Katusa)는 전 세계 석유, 가스,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로, CNBC, 블룸버그, 포브스 등에 관련 분야에 관한 분석을 기고해 왔다. 『Casey Energy Report』, 『The Colder War Letter』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50 GREAT MYTHS ABOUT ATHEISM

가제 : 무신론에 관한 50가지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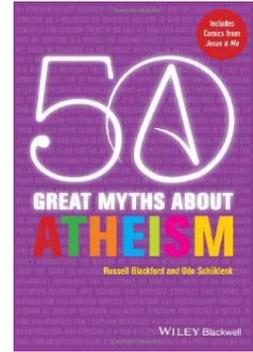
저자 : Russell Blackford, Udo Schuklenk

출판사: Wiley-Blackwell

발행일: 2013년 10월 2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인문과학



“읽기 쉬우면서도 무신론에 대한 오해들을 신빙성 있게 엮은 이 책은 무신론의 타당성을 가차없이 이끌어낸다.” —리처드 도킨스

**무신론이 윤리를 망가뜨린다? 그냥 무시하기에는 위험한 무신론에 관한 심각한 오해들**

거짓말도 자주 반복되면 서서히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무신론 때문에 스탈린과 히틀러가 자행한 짓이나 폴 포트의 대학살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던가, ‘무신론자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혹은 ‘무신론도 종교의 한 종류일 뿐이다’라는 말들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철학자인 두 저자는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무신론과 무신론자들을 소재로 삼아, 대부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확산된 잘못된 정보와 틀린 해석을 유쾌한 유머 감각으로 꼬집어낸다.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종교를 믿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무신론에 얽힌 오해들 중에서도 가장 터무니없는 50가지 허위 정보를 선정하여 객관적인 견지에서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무신론에 관한 이성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책이다.

무신론이란 무엇일까? 무신론자라는 말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무신론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없고 오히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흔히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가 비슷한 범위로 묶이는 경우가 있지만, 불가지론의 경우 신의 존재에 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두 저자는 이와 같이 구분하기 혼란스러운 무신론과 무신론자의 정확한 개념부터 설명한 후, 종교인들이 오랜 세월 제기해 온 터무니없는 비방과 오해를 살펴본다. 무신론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주장, 신을 믿지 않으면 잘한 일은 보상을 받고 부당한 일은 벌을 받는 기준이 없으니 도덕도 윤리도 없고 결국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주장,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자비한 살육의 욕구를 참지 못한다는 주장 등 자극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주장들이 누구에 의해 어디서부터 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 어쩌서 이 근거 없는 주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지 분석한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 수위는 더 이상 그냥 무시하거나 내버려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신론자로 알려지거나 심지어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무자비

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들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형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평범한 고등학생이 학교 졸업식 행사에 기도 시간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학교 측은 논의 끝에 이 학생의 요구대로 졸업식에서 기도 시간을 제외했지만, 항의 사실이 교사들을 통해 다른 학생들 귀에 들어가면서 결국 일부 학생들이 그를 두들겨 패고 살인 협박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헌법에 주어진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두 저자는 이와 같이 과열되고 왜곡될 대로 왜곡된 무신론과 유신론의 첨예한 대립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책에서 무신론에 관한 오해들을 바로 잡는다. 더불어 현대 무신론의 역사와 함께 경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과학계의 특성상 무신론이 왜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설명한다.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 <목차>

##### 머리말

무신론이란 무엇인가?

오해를 왜 풀어야 할까? (이하 생략)

1. 무신론이란?
2. 무신론자의 삶
3. 무신론, 윤리학, 그리고 영혼
4. 무신론에 씌워진 이름들
5. 끔찍하고 거슬리는 존재가 된 무신론자들
6. 믿음과 근거
7. 종교와 과학
8. 무신론에는 미래가 없다?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러셀 블랙포드(Russell Blackford)는 호주 뉴캐슬 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철학자, 문학 비평가, 작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종교 철학, 정치 철학, 형이상학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했다. 저서로는 『Freedom of Religion and the Secular State』를 발표했다. 학술지 「Journal of Evolution and Technology」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우도 슈클랭크(Udo Schüklenk)는 캐나다 퀸즈 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온타리오 생명윤리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저명한 생명윤리학자로, 국제 학술지 「Bioethics and Developing World Bioethics」의 공동 편집장이기도 하다. 7권의 저술서, 1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